

전주 도약 · 대변혁 위한 힘찬 소통

영유아 가정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

우범기 전주시장, 진북동·금암1동서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 이어가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혁을 이루기 위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발걸음은 전주시민 삶속까지 파고들며 지난 3일 힘찬 걸음을 내디뎠다.

전주시정에 대한 전주시민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전진의 기틀로 삼아 전주시민과 함께 대변혁의 꿈을 이루기 위한 우 시장의 발걸음은 진북동과 금암1동으로 향했다.

우 시장은 이날 오전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을 찾아가 진북동 200여 명 시민의 소리를 청취하고 "진북동은 MICE복합단지, 왕의공원 프로젝트, 전주천·삼천 통합 문화공간 조성" 등 전주시의 핵심사업 공간들과 인접해 있어 더 큰 미래 성장이 기대된다"고 기대의 찬 희망소리를 냈다.

주요 논의로는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 진북동 하수관거 사업, 진북동 치매안심마을 운영, 동양아파트 인근 구역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시민들과의 깊은 대화가 지속됐다.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혁을 이루기 위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발걸음은 전주시민 삶속까지 파고들며 지난 3일 힘찬 걸음을 내디뎠다.

같은 날 오후 일정으로 전북보훈회 본점과 보험회사 등 금융 관련 회사가 밀집된 금암1동 150여 명의 시민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북은행

한 중요한 장소다. 또 전북대학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동 인구가 많고, 종합경기장과 바로 인접해 있어 민선8기 '전주의 대변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다"고 시민들과의 힘찬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우 시장은 여기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금암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금암초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시민들과의 소통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면밀한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한 전라도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대변혁의 꿈을 꾸겠다. 시민소리에 귀 기울여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을 꾸준히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주민 삶의 터전에 새로운 활력소와 웃음이 넘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올해 전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부모양육에 대한 역할 인식과 변화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주제와 부모 유형별로 나눠 부모교육을 제공한다.

센터는 그 첫 일정으로 지난 4일 '아빠와 함께하는 몸 건강 활동'을 주제로 '아빠와 함께하는 몸 건강 활동'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은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놀이에 참여해 즐겁게 상호작용하고, 실천적인 양육 방법을 배우며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육적 기

능을 보완하고,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연중 다양한 부모교육과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3년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jonjssc.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905-6509)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자녀 돌봄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 못지않게 중요하며, 아버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은 아이의 자립에 자녀와 특별한 친밀성을 갖게 도움을 준다. 앞으로 다양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전주, 미래를 키우는 전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전북경찰청, 겨울철 특별교통관리로 도민 피해 줄여

교통안전관리 기간 교통사망사고 0건 · 부상자 20.5% 감소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0일 동안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교통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기간동안 도로관리청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재설치비 정비와 모래 보충을 하고 결빙 취약 구간 및 교통순찰차 탐차 정비를 사전 점검하며 폭설에 사전 대비를 했다.

김명경 교통안전계장은 "자연 재해를 피할 수 없지만 전북경찰의 노력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있다면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특색에 맞는 교통관리 대책 시행으로 도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에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완산구,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하세요'

완산구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보다 많은 구민 혜택을 주기 위해 5.27% 자동차세액 할인혜택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6.4%, 3월은 5.27%, 6월은 3.5%, 9월은 1.70%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방법으로는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 방문 신용카드 납부,

ARS(1588-2311)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 CD/ATM(현금인출기)조회 납부, 가상계좌(전북은행) 이체, 16일 부터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이 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폐차말소일 또는 매도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영태 기자

모기 발생 원천적 차단으로 감염병 예방 나선다

전주시보건소,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모기유충구제 집중 방역소독 추진

전주시가 모기 등 각종 위생해충으로부터 전파되는 감염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3월부터 모기유충구제 집중 방역소독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이달부터 방역기동반 2팀 4명을 구성해 유충의 주요 서식처인 구도심 정화조 및 집수정, 복개하천 등에 유충구제 약품을 살포하고, 잔류분무 소독을 시행해 여름철 모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방침이다.

모기유충구제 방역 실시는 지난 2일 3일 방역기동반 4명에게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하고, 6일부터 오는 5월까지 방역이 진행된다. 이후 6월부터는 본격적인 여름철 방역으로 이어진다.

유충구제 방역은 성충으로 부화되기 전 사전에 해충을 제거하는 방역 활동으로, 해빙기에는 월동 모기의 영양상

태가 고갈돼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져 소량의 약품으로도 살충효과가 높다. 특히 유충 1마리의 구제로 성충 500마리를 구제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면에서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소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고 모기 유충과 겹다구만 선택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친환경 유충구제제를 사용해 방제작업에 나설 계획이

/조아록 기자

전북환경청,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간담회 개최

화학사고 예방·신속한 사고 대응 위한 사업장 간 자율적 협력 강화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전북대학교에서 '2023년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간담회'를 지난 3일 개최했다.

화학안전공동체는 지역 화학사고에 인근 기업들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기업(1개사)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3개사)을 한 개의 공동체로 구성·운영

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화학 안전·제도 교육 및 시설·공정관리 요령 등을 기술지원하는 사업장 간 자율적인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대응 협력체이다.

전라북도 지역은 2013년부터 7개 공동체 28개 사업장으로 공동체 활동을 시작한 이후 현재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산업단지 총 15개 공동체

에 60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화학안전공동체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월~6월) 시 주요 점검사항 안내 및 화학물질 관리 각종 규제 이행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전북지방환경청은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사례 발표를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 예방 착안사항을 사업장에 전파했다.

/조아록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